

우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단청·조각·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영식

T. 931-2287(화선), 936-0069(전시관)

#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만평생통장**

- 예금 거래 실적의 30% 최고 1억원까지 대우혜택 드립니다
- 3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대우 혜택이 커집니다
- 30년째 살아남습니다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태형 / 발행인 겸 편집장: 김광삼 / 본사소재: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건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8월 21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 이렇게 들었다

최근 들어 치안 상태가 몹시 불안하다. 공권력을 바로 세우는 여러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의 하나로 국민들이 순순해서 협조하는 일을 들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시민정신이다. 사회의 질서를 세우고 공권력을 돕는 이런 의로운 일에 선택 나서는 사람은 좋은 본보기가 된다. 성폭행범을 잡다 목숨을 잃긴 최성규씨, 뽕소니 차에 치인 사람을 구하다 중태에 빠진 임종호씨등.....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며 이웃과 사회의 정의를 위해 뛰어든 이들의 선행은 길이길이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된다. 자기 희생을 통한 선행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을 듣는다. (관집자 주)

보살행을 닦는 사람은 온 따르는 것 같으니라. 갖 선법의 씨를 뿌려 하나하나 익히게 된다. 그리고 그것들이 익고 나면 거기로부터 온갖 선법이 생겨나고, 선법이 생겨나면 큰 환희가 일어나 불법(佛法)을 구하게 이른다. 저 선법의 씨앗은 다같이 지난대도 파괴되는 일이 없다. (대집회정법경)

온갖 선법을 실천하면 곧 아득다라삼막삼 보리를 얻는다. (반이경)

같이 선인지 악인지를 살피고, 마음에 거릴 줄을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악을 두려워해 범하지 않는다면, 종내 행복하여 근심이 없으리라. (법구경)

작은 선행은 복보가 없다 하여 가벼이 알아서는 안된다. 꿀방울은 아주 작지만 차츰 큰 그릇까지도 채우는 것처럼, 선행도 점점 넓어지면 작은 것이 큰 것을 이루게 되는 까닭이다. (법집요술경)

마음 속으로 늘 선을 염하여,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한다면, 즐거움이 스스로 닥쳐올 것이다. (법집요술경)

- 명저부록
- 정신문화봉사 '세바람' 15권
  - 8·15 건국훈장 받은 불교신심 14권
  - 여름사찰수련 동침 가지방담 2권
  - 교계 문화재 전담부서 절실 6권

# “종교연대 사회운동 필요”

### ‘불교-기독교 국제학회’ 시카고회의서 협력방안 모색

### “사찰방화·불상훼손등 한국상황 우려” 성명서 채택

세계종교의 흐름은 사회평화를 위해 종교간 연대운동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지난 7월27일부터 8월3일까지 미국 시카고 드롭대학에서 열린 ‘불교-기독교학 국제회의’의 이에 앞서 7월22부터 27일까지 미국 캔타키 게세미니 수도원에서 열린 ‘수도자들의 종교간 대화’ 모임에 잇달아 참가한 한국대표단에 의해 채택된 ‘한국대표단 의결문’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불교-기독교학 국제학회’ 시카고회의에서 각국 종교 지도자 학자등 8백여명은 최근 한국사찰 방화, 불상훼손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다종교사회에서 자기 종교를 위해 타종교를 무시하고 성

물을 파괴하는 것을 우려한다’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장에서 낭독했다. ‘불교와 기독교의 사회참여’를 주제로 열린 불교-기독교학 회 시카고회의는 도덕·여성·환경·폭력·전쟁·AIDS 등의 9개 소주제를 놓고 토론을 펼쳤다. 특히 지난 2일 드롭대 강당에서 열린 ‘한국에서의 불교와 기독교 연대’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내외적으로 한국종교인협의회 등 종교연합회 운영되고 있으며 남북통일 월드컵 유치기원대회등 사안별로 종교계가 모이고 있으나 내적으로는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기독교의 급속한 팽창과 정에서 불지각한 일부 맹신도들에 의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종교지도자들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법타린님은 원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대신해 ‘한국불교와 조계종’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렸다. 또 ‘예수를 통한 초의선사의 사회 교류’라는 주제를 발표한 진월스님은 초의선사가 당시 다산·추사 등과 친분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어떻게 실천했는가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김성훈(바설대학) 교수는 ‘만해스님에 나타난 참여불교운동’을 통해 불교와 기독교 간의 밀접한 사회적 상호관계를 모색했다. 이번 대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유정길국장(불교환경교육원)은 대회 분위기에 대해 “기독교 천주교 불교학자들이 모였으나 대

## 중앙종무기관 첫 재무감사

### 조계종 총무원 내년예산 편성근거 마련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이 개원 이래 처음으로 중앙종무기관에 대한 재무감사를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다. 감사 대상기관은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의 각 부서와 파라미터,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등이며 공인회계사, 세무사들의 자문을 받아 96년 1월부터 7월까지 집행한 예산을 집중감사한다. 감사방법으로는 수검자료를 토대로 서면과 면접감사를 혼용하고 재무감사와 관련한 사업예산계획과 집행의 타당성 여부등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의뢰도 병행한다.



△불교-기독교학 국제회의가 시카고 드롭대학에서 열렸다. 달라이라마를 비롯한 전 세계 종교지도자, 학자 8백여명이 참석했다. 법타(오른쪽 세번째) 고사한다(왼쪽 세번째)스님.

## 복지시설 설립 쉬워진다

### 보건복지부 98년부터 허가제서 신고제로 전환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일 '98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설립을 허가제서 신고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종교단체 기업 개인의 참여를 가능토록 한 '사회복지시설 운영내실화 방안 시안'을 발표함에 따라 불교계의 사회복지시설설립이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내실화 방안 시안'은 노인·아동·장애·인·부랑인·정신질환자 등 복지시설 수용자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의 설립과 운영의지만 있다면 합법적으로 세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비영리 사회복지법인만이 양로원 고아원 등의 운영이 가능했다. 이

에따라 그동안 결성에 난항을 겪어온 중앙신도회 준비위원회의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신도회 창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준비위원회의 해체, 재구성도 예상된다. 준비위원회는 지난 5월 부처님오신날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의 공식회의도 갖지 못했으며, 주무부서인 총무원 총무부도 담당직원조차 배치하지 않는 등 중앙신도회 구성에 의지가 없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김재일씨는 중앙신도회 창립준비위를 탈퇴하지는 않을 것이며, 중앙신도회가 창립되더라도 재가불자연합은 조계종을 비롯한 여타 종단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독자적인 재가불교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재가불자연합 재창립 추진

### 결성난향 중앙신도회에 영향 미칠듯

지난해 9월 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준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사실상 해체상태에 놓여있던 한국재가불자연합(당시 공동대표 안동일 외 3인)이 재가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재가불자연합 집행위원장으로서 참여했던 김재일 동산반야회장은 이와관련 “중앙신도회 창립이 여러 차례 연기되는데도 총무원은 이에 대한 대책은 물론 창립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가불자의 독자적인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재가불자연합의 재가운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대생용 미륵반가상 중·고교에 보낼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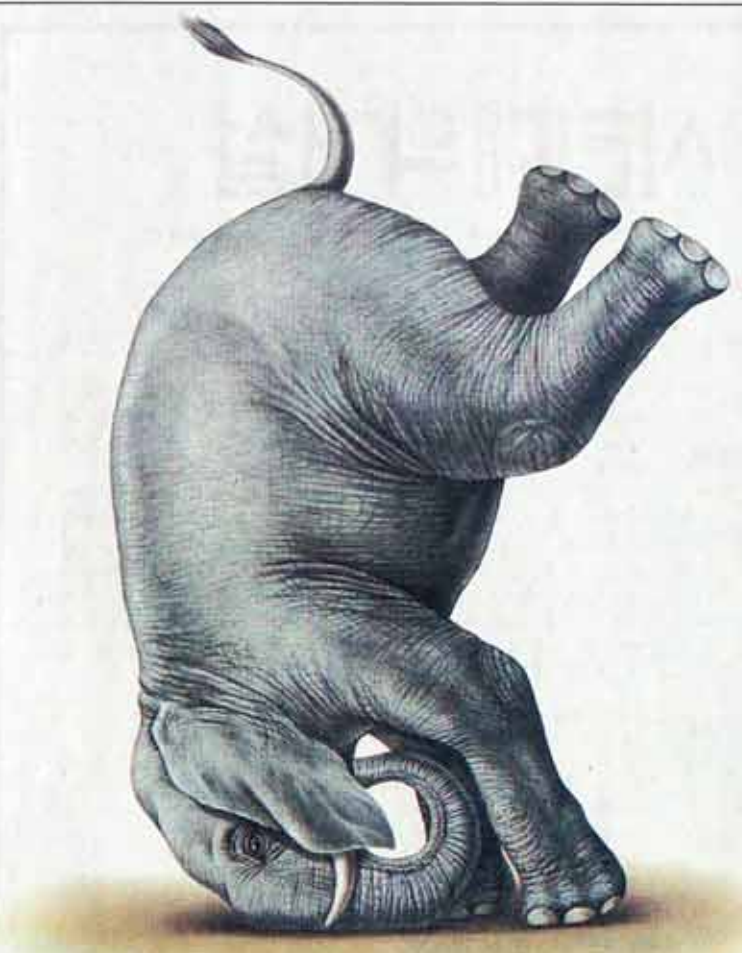
**등첨해주신 분**

△원도 협찬 청림사스님: 서울 중앙중·고 서울공고 강남중 중대부속중·고 중대부속여중·고 중앙고 남강중·고교(11구좌) △지암도림사 포교당주지: 하동여고(1구좌) △대전 송림사스님: 전곡고(1구좌) △이대영: 중원 동작초등학교(1구좌) (8월14일 현재 총 424구좌 접수)

**어떻게 참여하나**

◇보급기간: 1996년 12월 31일까지  
 ◇보급대상: 전국 중·고등학교 각 1점씩 총 4,588점  
 ◇구좌단위로 참여(1구좌 10만원)  
 ◇종단·사찰·기업·단체·개인 누구나 가능  
 ◇수령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지역 학교·출신 학교·자녀가 다니는 학교등.)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  
 ※ 온라인 계좌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입금후 반드시 본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4년간 국가 기간산업을 선도해 온 효성중공업 - 끊임없는 기술창조로 21세기 초일류 중공업회사로 도약하겠습니다.

근본이 강해야 무엇이든지 제대로 서는 법 - 중공업은 모든 산업발전의 근본입니다.

지난 34년간 국내 중공업계를 선도해 온 효성중공업 - 첨단기술로 실현하는 풍요로운 21세기를 위해 효성의 도전과 창조는 멈추지 않습니다.

## 근본이 강해야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전력사업부문**

산업에너지의 핵을 이루는 각종 중형기 및 동력발전기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전력의 고도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발전기, 차단기, 전압분, 계전, 용접기, 철강설비

**기전사업부문**

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전동기를 비롯하여 각종 플랜트는 물론 발전소용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기계 및 장비개발로 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동기, 발전기, 압축기, 주조설비, 환경보존설비, 화학장비, 석도설비

**자동화사업부문**

최첨단 Mechatronics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고기능, 단축, 요소기에서 분산, 집중 제어 System까지 완벽한 자동화를 실현한 Total FA Solution을 자신있게 제안합니다.

제어설비: LPS, PLC 등 전동기, 펌프 SYSTEM, SERVO SYSTEM, FA SYSTEM, 신호처리 SYSTEM

**건설사업부문**

한국의 오지도 허용하지 않는 세심한 설계와 시공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오피스빌딩, 각종 건축공사, 도로, 방파제, 철도, 토목공사, 포장공사, 조경공사

**효성중공업주식회사**